

'시대의 스승' 이들을 기억하라



이흥재의 세상만사

주필

광주 시민이라면 무등산 자락에 있는 춘설헌을 한 번쯤 가 보았을 것이다. 이곳의 주인은 세 번 바뀌었는데 모두 이 시대의 선각자들이었다. 첫 번째 주인은 석아(石亞) 최원순(1896~1936), 두 번째 주인은 오방(五放) 최홍중(1880~1966), 그리고 마지막 주인이 의재(毅齋) 허백련(1891~1977)이었다. 택호(宅號) 또한 석야정(石野亭)에서 오방정(五放亭)으로 다시 춘설헌(春雪軒)으로 바뀌었다.

이들 세 분의 선각자들을 가리는 전시회가 '무등 시대의 스승을 품다'라는 제목으로 요즘 의재미술관에서 열리고 있다. 후손들이 소장하고 있는 사진과 유품을 만날 수 있는 이번 전시를 계기로 오늘 우리는 이들의 삶을 돌아보고자 한다.

오방 선생은 나병 환자와 장애인들을 돌보는 데 일생을 헌신해 '광주의 성자(聖者)'로 불렸다. 선생의 호(號) 오방(五

放)은 다섯 가지 속된 욕심인 식욕, 색욕, 물질욕, 명예욕, 생명욕을 버리고 마음의 자유(去勢)까지 감행했던 선생은 광주 최초 청년 야학교와 유치원을 개설한 근대화의 선구자로 광주YMCA 창설의 산과 역할을 했고 3·1운동을 주도했다.

의재 선생은 1930년대에 연친회를 조직하고 해방 이후에는 1970년대까지 농업학교를 운영하면서 가난한 청년들에게 희망을 심어 주었던 교육가이자 사상가였다. 조선 후기 한국 남종화를 완성했던 허련의 후손으로, 시·서·화를 겸비했으며 생전에 광주의 대표적인 지식으로 추앙 받았던, 더 이상 부연설명이 필요 없는 남종화의 대가다. 오방과 의재는 해방 직후 농업학교에서 각각 교장과 부교장을 맡은 일도 있다.

광주 최초의 여의사

이들 두 분이 비교적 널리 알려진 데 비해 2·8독립운동의 주역인 석야 최원순은 일반인들에게 조금은 생소한 편이다. 오늘이 이들의 삶을 돌아보며 석야에 더 많은 지면을 할애하려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광주 최초의 여의사였던 석야의 부인 현덕신(1896~1963)도 독립운동가였다는 사실이 새롭다.

아주 오래된 사진 한 장이 있다. 사진 속의 여인은 가늘고 둥근 테의 안경을 쓰고 있다. 머리는 단정하게 빗어 넘긴 단발머리를 하고 다녔다는 말이 생각난다.

의사였던 그녀에게 평생 잊을 수 없는 사건이 있었다. 어느 날 새벽 한 청년이 찾아와 "급한 산모가 있다"며 양친을 청했다. 그녀는 잠결에 왕진 가랑을 챙겨 들고 집을 나서려다 잠시 돌아앉았다. 엉클어진 긴 머리를 가다듬기 위해서였다. 머리를 매만지는 시간이 그리 길지는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몇 분가량 지체한 사이, 그녀가 환자의 집에 당도했을 때 임신부는 이미 목숨이 꺼진 뒤였다. 그 일이 있은 후부터 그녀는 평생 단발머리 모습으로 생활하게 된다.

평양에서 보통학교를 졸업한 현덕신은 이화학당을 나와 잠시 교사 생활을 했다. 그러나 1917년 '불쌍한 동포에게 회생약을 먹여 신천지의 신복락을 맛보고 누리게 하리라는' 건장한 뜻을 품고 현해탄을 담대히 건너 일본 유학을 떠났다. 그녀가 적성에도 맞지 않았던 의사의 길을 택한 것은 순전히 '조선 여자'들과 '조선 사회'를 위해서였다. 이윽고 1921년 동경여자 의학전문학교를 마치고 그녀는 춘원 이광수의 부인 허영숙(1917년 졸업)과 정자영(1920년 졸업)에 이어 조선의 세 번째

여의사가 되었다. 그녀는 1919년 1월, 유학생들에 의해 모종의 거사(2·8 독립선언)가 준비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혼자서 마련한 자금 40원을 내놓기도 한, 일본 경시청의 1급 요시찰 인물이었다.

그녀는 1923년 6월, 유학시절 인연을 맺은 광주 출신 동아일보 기자 최원순과 결혼하게 되는데, 이제 그녀의 남편 석야 최원순의 삶을 돌아볼 차례다. 그동안 선생에게 대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너무 얽박했다. 그러나 이 지역 숨은 작가들을 발굴 소개하며 학계의 큰 주목을 받고 있는 조선대 이동순 교수는 이렇게 말한다. "근대 광주정신의 출발은 최원순에서부터였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교수의 안내에 따라 일제 치하에서 불꽃같은 삶을 살았던 그의 삶과 행적을 따라가 보자. 1896년 광주에서 태어난 그는 광주공립보통학교(현 서석초등학교)를 졸업하고 경성고등보통학교를 다닌 뒤 2년간 교사로 재직하였다. 이후 와세다 대학교 정경과에 입학하였다.

그리고 일본 동경의 조선기독교청년회관에서 '2·8 독립선언'의 불씨를 놓았다. 최원순은 거사 준비를 위한 동서연합회 변대회에서 미국 교포들이 30만 원이라는 거액의 독립자금을 모금했다는 소식과 함께 유학생들의 자제와 나이갇 길을 역설했다. 그러나 최원순은 조직 규합 등

사후 일을 도맡는 것으로 결정돼 '조선청년독립단' 대표자에 이름을 올리지는 않았다. (이해 소설가 아무명이 1958년 '자유문학'에 발표한 '2·8 전후'라는 소설에도 묘사돼 있다.)

최원순은 이광수가 쓴 독립선언서 1만장을 비밀리에 등사하였다. 독립선언서는 1919년 2월 8일 오후 2시 조선기독교청년회관에 600여 명의 유학생이 모인 자리에서 낭독되었다. 적국의 심장부에서 조선 독립의 함성이 울리던 그날, 유학생 40여 명이 일경에 체포 연행 구금되었다.

오방·석야·의재의 우정

최원순은 시대를 깨우고 조선 민중을 깨운 대종연설가였다. 1920년부터 1922년까지 3년 동안 조선 땅 전국을 순회하면서 대중강연을 펼쳤는데 '칼날을 들고 청중의 심장을 찌르는 듯하고 혀에서는 불비가 쏟아지는 듯한' 열변으로 대중을 움직였다 한다. 최원순은 달변이었을 뿐만 아니라 글도 잘 썼다고 한다.

당시 이광수의 민족개조론을 공개적으로 문제 삼기도 했더니 놀라운 일이다. 그는 동아일보에 게재한 글 '이춘원에게 묻노라'를 통해 '조선인을 무지몽매한 아반인종으로 규정할 이유와 근거 그리고 열

역하다는 조선 민족성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론적인 근거를 요구하였다.

춘원을 공박하는 글로 존재감을 알린 그는 1923년 와세다 대학을 졸업하고 동아일보 기자로 입사한다. 그는 일제의 언론 탄압을 받으면서도 결코 타협하지 않았고 이 때문에 몇 차례 필화(筆禍)를 입기도 했다. 1926년 8월22일 자 '횡설수설'에서 '총독 정치는 악당 정치'라고 비판했다가 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돼 석달간 옥살이를 한 것이 대표적인 예다.

권력 앞에 한 치의 흔들림도 없었던 그는 동아일보 편집국장 대리까지 지냈으나 건강이 좋지 않아 광주로 내려온 뒤 무등산 자락에 석야정(石野亭)을 짓고 '요양하였다. 지친 심신을 달래기 위해 '돌방어리'가 되었다'고 작심한 것이었을까. 하지만 병을 치유하지 못한 채 우리 나이로 41세 되던 해 요절하고 말았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시대의 스승' 세 분의 삶을 간략하게나마 돌아보았다. 오방은 의재·석야보다 몇 살이나 더 많았지만 당시 형제와 같은 두터운 정을 나누었다고 한다. 이들 자랑스러운 이 지역 근대 선각자들의 우정은 지금 오방의 손자 최영(전 전남대 명예교수), 석야의 손자 최영훈(사영화가), 의재의 손자 허달재(한국화가) 등 3대로 이어지고 있으니 참으로 아름다운 일이다.

광주 도시철도 2호선 21일 첫 삽...대남대로부터 시작

지하 매설물·교통 혼잡 등 고려 시민불편 최소화 지역부터 시공

광주 도시철도 2호선 건설 공사가 21일 첫 삽을 시작으로 대장정에 들어간다. 14일 광주시 도시철도건설본부에 따르면 시공사 선정이 늦어진 2공구를 제외하고 나머지 5개 공구 공사가 21일부터 순차적으로 시작될 예정이다.

광주시는 지난달 5일 기공식을 하고 공구별 시공사와의 공사 계약 체결, 구간별 도로 굴착·점용 허가, 안전성 검사 등을 거쳐 우선 시공 구간을 정했다. 우선 시공 구간은 도시가스 등 지하 매설물이 없고 공사로 인한 교통 혼잡 등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지역을 최우선으로 고려·선정했다.

공구별 우선 시공 구간은 1공구는 상무중앙로 유덕2교차로부터 1교차로까지다. 2공구는 금화로 파인힐 아파트 4거리부터 월드컵경기장 사거리까지, 3공구는 월드컵경기장 입구 3거리부터 꽃차원 3거리

(월드컵 서로)까지다. 4공구는 대남대로 기업은행 앞부터 미래아동병원까지, 5공구는 필문대로 삼부주유소부터 지산사거리까지, 6공구는 필문대로 산수파출소부터 현대자동차 산수지점까지다.

4공구 공사를 21일 먼저 시작하고 나머지 공구는 이달 말까지 순차적으로 들어갈 계획이다. 업체 선정이 늦어진 2공구는 11

월 공사가 시작된다. 광주시는 조달청의 종합평가를 거쳐 1공구 롯데건설 컨소시엄, 2공구 한신공영 컨소시엄, 3공구 태영건설 컨소시엄, 4공구 한라 컨소시엄, 5공구 한화건설 컨소시엄, 6공구 경남기업 컨소시엄을 시공사로 선정했다. 광주 도시철도 2호선은 순환선으로 시

정~월드컵경기장~백운광장~광주역~전남대~첨단지구를 지나 다시 시청으로 이어지는 총연장 41.8km 구간이다. 정거장 44곳, 차량기지 1곳을 짓는다. 3단계로 나누어 진행되며 2023년 개통 예정인 시점에서 광주역을 잇는 1단계가 먼저 착공에 들어간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한국형 차세대 전투기(KF-X) 실물모형 공개 14일 오전 경기 성남 서울공항에서 열린 '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서울 ADEX 2019) 프레스 데이 행사에서 공군의 한국형 차세대 전투기(KF-X)의 실물모형이 공개되고 있다. /연합뉴스

노벨경제학상 뒤플로·크레이머·바네르지 공동 수상



아브히지트 바네르지 에스테르 뒤플로 마이클 크레이머

전세계 빈곤퇴치 능력 향상

올해 노벨경제학상의 영예는 에스테르 뒤플로와 마이클 크레이머, 아브히지트 바네르지 등 3명에게 돌아갔다. 스웨덴 왕립과학원 노벨위원회는 14일(현지시간) 2019년 제51회 노벨경제학상 수상자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뒤플로는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두 번째 여성 학자다.

노벨위원회는 이들의 수상 이유에 대해 "전세계 빈곤 퇴치에 대한 우리의 능력을 상당히 향상했다"며 "불과 20년 만에, 그들의 새로운 실험 기반 접근법은 개발 경제를 변화시켰는데, 이것은 현재 번성하는 연구 분야가 됐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임야

바로잡니다.
당일처리, 010-6834-7400

투자 자문

급매물/경매특수물건
법적으로 보장.010-3605-5000

부실채권 못받은 돈 회수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
차용증·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
녹취등 각종채권상당**

▶ 절대 수수료, 출장비용 없음 ◀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등 파악
- 실거주지 파악 가능
- 법원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 전국 68개 점포로 전국 가능

▶ 국가신용관리사가 직접관리 ▶

선수금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산분들이 많으나 당사는 여러분의 재산을 회수한 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내재산이다라는 마음으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상담가능)

NAVER 채권추심 회수왕

새한신용정보(주)

010-6833-1600
직통전화 062)512-4306

2019 이형만영광군항우장학회 장학금 모집

재단법인 이형만영광군항우장학회는 영광군민 및 재광영광군항우회원 자녀 중에서 애학심이 투철하고 품행이 단정하며, 특기 및 학업 성적 등 미래의 비전이 뛰어난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장학 대상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 1 지원자격 및 선발인원**
 - ◆ 지원자격
 - 영광군민 및 재광 영광군항우회 회원 자녀 중에서 중고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 2018년 10월 1일 현재 영광군내에 거주하는 주민등록이 된 부모를 둔 학생
 - ◆ 선발인원
 - 총 20명으로 하되, 영광군민 자녀 12명, 재광영광군항우 자녀 8명(예정)
- 2 선발방법 및 구비서류**
 - ◆ 선발방법
 - 영광군민의 자녀 중 영광군수가 추천한 학생 (영광군 추천 양식에 의함)
 - 재광영광군항우 자녀는 별도 서류를 제출하여 장학선발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확정된 학생
 - ◆ 구비서류
 - ① 해당 학교장 또는 기관장 추천서 1부
 - ② 공적 조서(해당 분야 자료 사본 첨부)
 - ③ 가족관계증명서 1부 ④ 재학증명서 1부 ⑤ 성적증명서 1부
 - ⑥ 통장 사본(본인 명의) ⑦ 개인정보이용동의서
 - ⑧ 글쓰기 작품 1점 : 수필, 자필시, 생활문장(학생에 선발된다면) 등 형식, 내용에 구애받지 않고 제출
- 3 서류접수 및 선발예정**
 - ◆ 서류 접수
 - 우편 또는 방문 접수
 - 신청 및 문의처 : (우 61903) 광주광역시 서구 유림로 100 (동전동 혜안빌딩 7층)
 - 전화 : (062) 522-8422/사무국장 김성수 010-4622-2337 (이메일 kss2377@nemail.net)
 - ◆ 선발 일정
 - 접수 기간 : 2019년 11월 1일(금)~11월20일(수) 17:00까지
 - 최종 선발 : 2019년 12월 초순 발표
- 4 유의사항**
 - 모든 제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선발이 취소됨
 - 관련 서류의 제출은 영광군민의 자녀는 영광군청으로 제출하고, 재광영광군항우의 자녀는 이형만영광군항우 장학회 사무국 사무실로 제출

* 영광군청 추천 : 영광군 추천 양식에 의함(위 구비 서류는 공통)
* 구비서류양식 : 재단법인 이형만영광군항우 장학회 카페 <http://cafe.daum.net/inyng> 참고

부안곰소 토지매매

부안군 진서면 진서리 265-5외 14필 (계획관리지역)

- 출포·IC·10분거리 해안탐방도로 (현 공사중)
- 곰소염전인접, 내소사 10분, 출포생태공원 10분

● 조 망 : 앞 - 곰소만바다
뒤 - 내변산국립공원

매매가 평당 35만원
면적 약 2만평 분할 가능

**리조트·숙박시설·근생
모든 업종 개발 가능**

문의 **010-5464-4448(주인)**

금당공인중개사

저희는 매도·교환·개발 등의 물건을 구입합니다!

투자·매도·교환

- 월산동 농성초교 옆 도로점 2층 주택 땅 140㎡ 집 153㎡ 2억2천
- 자연인 생활 적합 순천시 황전면 봉덕리 산 34612㎡ 청정한 환경 1억
- 상가부지 남구 주월동 소방도로점 24㎡ 가계 신축해서 임대 총금 2억8천
- 아파트 월산동 제일파크 12층 67㎡ 조용한 생활 적합 1억2천
- 별장 영산강 부근 나주시 다시면 회진리 땅 450㎡ 건평 110㎡ 매도 2억8천
- 농장 적합 화순군 동면 대포리 10969㎡ 전원생활에 좋은 2억8천
- 무안 몽탄면 영산강점 48900㎡ 펜션 14개동 요양시설 등 적합 교환가 28억
- 전원주택지 함평군 월야면 예덕리 대지 235㎡ 2100만원
- 임대 케임동 아파트 부근 2층 88평 3층 86평 복층 사용 가능 2천에 230
- 강진군 도암면 계리리 땅 4021㎡ 빌라·대형 중국집 적합 은행 2억 매도·교환 5억천
- 제주도 서귀포 강정동 3647㎡ 빌라 등 적합 25억 약국용 건물도 교환가능
- 담양군 공성면 석현리 915㎡ 창고·다세대 등 다용도 적합 2억9천
- 남구 덕남동 매립면 땅(담) 8232㎡ 주위조경총금 9억4800
- 남구 덕남동 (노대동 노인건강타운) 부근 대지 652㎡ 남향 생활편리 5억5천
- 풍수상 사찰 최고 적합 덕남동산 26951㎡ 건물 67㎡ 교환가능 가격 조정됨 8억
- 전원주택 적합 영광군 백수읍 백암리 1130㎡ 조망 좋은 1억3천

상가건물

- 함평군 영산면 배다정 2167㎡ 3층 펜션 있고 숙박시설 적합 6억5천
- 유동 신축커뮤니티 단지 73㎡ 2층건물 30평 시설완비 은행 1억 매도·교환 3억6천
- 문흥동 4층빌라 땅 410㎡ 건평 613㎡ 안진 30평(공실)과 16실 월 510 매도 14억
- 북구 임동 모빌 땅 318㎡ 건평 5층 528㎡ 은행 2억3천 매도 6억천
- 서구 치평동 대형건물 중 1층 264㎡ 공실임 은행 8억 교환가능 19억

특급물건

- 동구 신수동 5거리 대로점 준주거 1249㎡ 병원·주상복합 적합 법인이전 49억
- 곡성군 옥사동면 계획관리지역 234044㎡ 다용도 법인이전 10억6천
- 강진군 순천면 상업지 등 4240㎡ 강진산단에서 1km 소형 APT 등 적합 15억
- 요양시설 영광 법성면 땅 5416㎡ 1층 477㎡ 증축 가능 은행 4억 매도·교환 8억
- 나주시 남대동 상업지 959㎡ 오피스텔·소형APT 다세대 적합 교환가능 9억5천

☎ 문의 **222-4994, 010-2632-5659**
서구한전, 농성초교앞문앞